

찾아가고 싶은 박물관,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만든다

국립전주박물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지역문화 전시·접근성 개선 등 주요업무계획 발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22일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찾아가고 싶은 박물관,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주제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지역문화 전시 및 콘텐츠 확대 △서예 문화 브랜드 강화 및 문화 소외지역 지원 확대 △박물관 접근성 개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경

△지역문화 전시 및 새로운 콘텐츠 확장
지역문화 전시 및 새로운 콘텐츠 확장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전 '모악산의 열매, 금산사', 국립박물관 소장품 지역 순회전 '모두를 위한 박물관, 찾아가는 전시', 지역문화 학술조사 '부안 죽막동 유적' 학술총서 발간, '청동기·철기 II' 학술총서 발간 등이 있다.

'모악산의 열매' 특별전시는 전북 불교의 성지이자 미륵신앙의 중심인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지역민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77건 120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또한 '모두를 위한 박물관, 찾아가는 전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백자 달항아리' 등의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중요문화재로 구성된 소규모 전시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선보인 후 양구백자박물관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박물관이 발굴 소장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토 유물을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한 '부안 죽막동 유적', '청동기·철기 II' 등 지역문화 연구총서 2종을 발간한다. '부안 죽막

동 유적' 총서는 금속유물(73점)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 참고품 조사·정리 결과를 수록한 연구 자료다. '청동기·철기' 총서는 청동기유물의 제작, 분석(X선, XRF 등), 사용, 전파 등 소주제별 논문을 수록한 자료집으로, 발간 후 연구성과를 2025년 특별전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예문화 브랜드 강화 및 박물관 인지도 제고

서예문화 브랜드 강화 및 박물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서예문화와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특별전 '한양가와 춘향전' 개최, 브랜드 전시실 교체전시, 전박물관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한다.

'서예문화'를 알리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2종(LED 미디어월 영상, 인터랙티브 체험형 영상)을 제작 공개한다. LED 미디어월 영상은 서예문화를 감각적으로

소개하며, 인터랙티브 체험형 영상 콘텐츠는 관람객이 실제 붓으로 쓰는 느낌을 주도록 제작한 디지털 붓을 사용해 화면에 글씨를 쓰면 완성된 작품이 다면 프로젝션 맵핑으로 전시되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반기에 열리는 '한양가와 춘향전'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했던 전시를 전주·전북 지역문화 및 문자문화와 융합한 독특한 전시다. 한양가에 담겨 있는 한양의 풍물을 통해 지역간 문화의 교섭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한반문 춘향전' 코너를 새로 구성해 전북의 지역문화를 조명한다.

브랜드 전시실인 선비서예실 전시품의 정기적 교체도 계획돼 있다. '선비서예'에서 '서예문화'로 브랜드 확장을 모색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예문화 브랜드를 기

반으로 박물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우리를 위로하는 손글씨 한줄'을 선보이는 '전박물관'을 야외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서예문화'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까지 전북 서화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전북의 서화가' 학술조사를 진행한다.

△박물관 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설전시실 전시환경 개선도 준비 중이다. 상설전시실에 영상 및 전시보조물을 추가 제작하고, 패널 및 설명카드의 내용을 쉽게 풀어쓰며, 휴식과 관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특수학교와 협업체 '찾아가는 친구들, 문방사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유아 단체 대상 '문방사우를 찾아라!' 프로그램을 신설해 붓글씨 쓰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서예인문학 강좌'는 서예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옛 선비들의 생활 곳곳에서 인문학적 지혜를 만나고 붓글씨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전주박물관 대표 교육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경도 관장은 '박물관을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면서 "전시를 보지 않더라도 공연이나 행사를 즐겨도 좋고, 잠시 시간을 내 편안하게 정원을 산책하고 차 한 잔 즐기며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내는 문화기관으로 여기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정월대보름 앞두고 오곡밥 나눔 행사 가져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과 부럼 등 나눔 행사를 통해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22일 전주시 보훈회관에서 보훈대상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맞이 오곡밥, 부럼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월대보름의 대표 음식인 오곡밥과 부럼을 나누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함에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 김귀만 회장,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전지회 전북전주시지회 유길욱 사무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회, 전물군경미망인회 전주시지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주시지회, 상이군경회 전주시지회, 광복회 전주시지회, 무공수훈자회 전주시지회, 고엽제전우회 전주시지회, 전물군경유족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김도영 원장은 "민족 고유의 세시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풍요와 복, 건강을 기원하고자 오곡밥과 부럼을 나누게 됐다"며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음악·민속 만나는 정월대보름

남원시, 24일 '조선광(光)클럽' 개장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4일 '광한투원에서 월매나 신나게요.'라는 주제로 '조선광(光)클럽'을 개장한다.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에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며 불을 지피고 춤을 추는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으며,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예술 놀이를 있는 의미로 입춘, 설날에 이어 '세시풍속 시리즈 3탄'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 '보름달' 조형물이 설치된 예루원마당 체험행사도 '보름달' 아래 광한투원에서 펼쳐지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예루원마당에서 소원지 쓰기, 향이·몽이 슈링클스 만들기, LED주불놀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광한투원에서 LED주불놀이, LED드룬댄스, 브레이크댄스, 대동 강강수월래 등 DJ이동용XDJ변사또가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 '조선광(光)클럽'이 펼쳐진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요천 둔치에서 24일에 진행되는 제23회 남원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와 보건소 앞에서 진행되는 금동 달집태우기 행사와 연계, 연 나눠주기, 소원지 태우기를 진행해 '정월대보름, 남원시 제대로 즐기기' 코스 안내로 남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3일 열리는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이하 당산제)와 함께 한다고 밝혔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제사 문화로, 전통문화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 내소사 일주문 앞에서 시작해, 불교 제례와 유교 제례에 이어 스님들의 바라춤, 국악,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불교와 토속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사찰과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전통문화를 보존해 가는 특색과 의미를 지닌다.

/장은성 기자

문화소외계층 위한 '봄나들이, 이음'

전주문화재단, 26일~4월 23일까지 클래식·미술 무대 등 6회 공연 진행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주공연예술원 습공간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림 프로그램 '봄나들이, 이음' 공연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년 아르고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전액 국비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새뜰마을주민돌봄센터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내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이 함께 전통예술, 클래식, 재즈,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은미 새뜰마을주민돌봄센터장은 "다양한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연예술이 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민간 협업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